

〈일반논문〉

## 『金庾信行錄』의 찬술 배경과 경위

윤 경 진 \*

〈목차〉

- I. 머리말
- II. 『김유신행록』의 찬술 배경
  - 1. 7세기 전쟁의 재인식
  - 2. 종묘제도 개편의 목적과 영향
- III. 『김유신행록』의 찬술 경위
  - 1. 찬자와 찬술 시기
  - 2. 찬술 목적과 영향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의 저본으로서 7세기 전쟁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 『김유신행록』의 찬술 배경과 경위를 탐구한 것이다.

혜공왕 즉위 후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업적을 내세워 무열왕과 문무왕을 遷之主로 삼음으로써 이들의 권위를 통해 어린 국왕의 입지를 보강하고자 하였다. 이에 7세기 전쟁의 결과는 백제의 병합에서 '兩國平定'으로 재인식되었다. 이 조치는 특히 문무왕을 부각시키는 한편 김유신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김유신 사후 입

\*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교수

지가 줄어들던 후손들은 이 조치로 더욱 타격을 받았고, 모반에도 연루되면서 몰락하였다.

그런데 무열왕계가 단절되고 원성왕이 즉위하면서 김유신 후손들은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김유신의 玄孫 長淸(金巖)은 그를 7세기 전쟁의 주역으로 평가하는 行錄을 찬술하였고, 하대 왕실은 무열왕계의 권위를 삭감시키는 방안으로 김유신을 현창하였다. 그리고 ‘양국평정’은 체제 이념으로 수용되면서 ‘一統三國’으로 확장되었다.

□ 주제어

金庾信, 金庾信行錄, 長淸, 金巖, 兩國平定, 一統三國

---

## I. 머리말

신라의 ‘삼국통일’은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틀이다. 4세기 중반 시작된 삼국의 전쟁은 7세기 중반 나당 연합에 의한 백제·고구려 공멸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 기간의 역사는 신라가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잃었고 고구려의 계승자로 평가되는 발해가 건국되었음에도 신라의 ‘통일’은 여전히 유효한 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라와 발해의 병립을 말하는 ‘남북국시대’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계와 사회 모두 ‘통일신라’를 더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신라의 ‘통일’이 강고하게 유지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7세기 전쟁의 결과를 ‘통일’로 평가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수립

된 ‘삼국통일’론이 오랜 기간 반복 재생산되면서 인식이 굳어졌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신라의 ‘통일’을 말할 수 있는 자료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영토의 측면에서 신라가 전쟁을 통해 확보한 범위에 고구려 땅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671년 「答薛仁貴書」에서 신라가 영유권을 주장한 “平壤已南 百濟土地”는 “평양이남이 곧 백제토지”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는가”에 따라 영토의 귀속을 논한 것으로, 신라 자신이 백제만 병합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sup>1)</sup> 이에 따르면 고구려 영토 일부를 차지했다는 ‘불완전한 통일’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역사의식의 측면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이념, 이른바 三韓一統意識이 7세기의 이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쟁 직후 신라가 이러한 이념을 표방한 자료는 모두 후대의 인식을 담은 것이다. 무열왕의 ‘一統三國(三韓)’을 말한 太宗 시호 기사나 “三韓爲一家”를 말한 김유신 헌의는 모두 후대에 가공된 것이며, “습三韓而廣地”가 나오는 「청주운 천동사적비」는 10세기에 건립된 것이다.<sup>2)</sup>

이러한 문제 제기는 결국 신라의 ‘통일’에 대해 자료적 측면에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이 바로 金庾信이다.

김유신은 지금도 ‘삼국통일의 영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그와

1) 윤경진,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 백제의 영토의식과 溟河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 60, 2016①.

2) 이 자료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학계의 논의가 있었다. 주요 논점은 윤경진, 「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에 대한 재론 : 근거 자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75, 2016②; 윤경진, 「신라의 영토의식과 삼한일통의식」, 『역사비평』 126, 2019①; 윤경진, 「삼한일통의식은 7세기의 이념인가」, 『韓國古代史研究』 93, 2019②; 윤경진, 「신라 ‘삼국통일’ 논쟁의 논점과 방향」, 『역사비평』 129, 2019③ 참조.

관련된 서사가 ‘통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三韓爲一家”를 자신의 성과로 제시한 김유신 헌의가 대표적이며, 무열왕의 공업을 ‘一統三國(三韓)’으로 제시한 태종 시호 기사 역시 김유신을 얻어 함께 이루었다는 취지여서 실제 주인공은 김유신이다. 그리고 그밖에 직접 ‘통일’을 말하지는 않았어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되는 서사도 여럿 있다. 이에 근거하여 7세기 중반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신라의 ‘통일’은 명확한 역사적 사실로 여겨졌다.

그러나 김유신 관련 서사들을 그대로 김유신 활동 시기의 사실로 환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태종 시호 기사나 김유신 헌의가 모두 후대에 가공된 것이 밝혀졌지만, 이들 외에도 김유신 서사는 대부분 과장과 허구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자료들은 근본적으로 그를 통해 후대의 역사의식을 담아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의 활용에는 반드시 이러한 속성에 대한 이해와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에 대해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 문제는 김유신 서사의 출전인 『金庾信行錄』(이하 ‘행록’으로 약칭함)으로부터 출발한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의 말미에는 김유신의 玄孫 長淸이 찬술한 행록 10권을 저본으로 했는데 釀辭, 곧 꾸며낸 이야기가 많다는 서술이 있다. 곧 행록은 근본적으로 과장과 허구가 많은 자료인 것이다. 찬자가 刪削했다고는 하지만 열전에는 여전히 허구가 분명한 내용이 들어 있다.<sup>3)</sup> 열전뿐만 아니라 신라본기에서도 그러한 서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또한 행록에 근거한 것으로 짐작된다. 나아가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 중에도 같은 성격의 기사가 여럿 있다.

따라서 7세기 전쟁의 내용과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유신

3) 김유신이 입산했을 때 노인이 秘法을 전수해 준 서사나 그가 죽을 때 그를 지키던 陰兵이 떠나는 이야기 등은 허구가 분명한 사례이다.

서사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불가결하다. 근래 김유신 설화 중에서 삼한일통의식과 연계될 수 있는 서사를 추출하여 그 의미를 분석한 논고는 그 일환이다.<sup>4)</sup>

그런데 이 작업이 유효하게 진행되려면 행록의 찬술 배경이나 경위를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김유신 서사의 기본적인 성격과 찬술 시기를 연계하여 접근하면 어느 정도 배경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마련되어야 실제 행록의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탐구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행록의 찬술 배경과 경위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행록에 대해서는 그간 몇몇 진전된 연구가 있었다. 정치·사회적 위상이 낮아진 김유신 후손 내지 금관가야계의 복권을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sup>5)</sup> 김유신 후손들의 지위가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행록 또한 그들의 지위 강화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6)</sup>

4) 이에 따르면 김유신 설화는 그의 공업이 '백제병합'에서 '양국평정'으로 전환되고 이로부터 '일통삼국'이 유도되는 맥락을 띠고 있다(윤경진, 「金庾信 說話의 敘事와 三韓一統意識」, 『震檀學報』 140, 2023).

5) 李基白, 「金大問과 金長淸」, 『韓國史市民講座』 1, 1987; 선석열, 「신라사 속의 가야인들 : 金海金氏와 慶州金氏」, 『한국 고대사속의 가야』, 해안, 2001;李文基, 「金官伽倻系の始祖 出自傳承과 稱姓의 變化」,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5, 2004.

6) 曹凡煥, 「金庾信의 가계와 후손들의 활동 : '가야계 출신이어서 가지는 한계'의 현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新羅史學報』 11, 2007. 이밖에 하대의 혼란기를 맞이한 정계에 이상적인 군신관계를 드러내 모범을 보이려는 목적에서 찬술했다는 견해(Vladimir M.Tikhonov,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條가 內包하는 意義」, 『梨花史學研究』 22, 1995)와 진골귀족의 왕위쟁탈전속에 김유신계의 정치적 결속을 꾀하기 위해 찬술했다는 견해(金皓東, 「金庾信의 追崇에 관한 연구」, 『新羅史學報』 22, 2011)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한편 찬술 시기는 대체로 열전에 수록된 김압이 일본에 다녀온 779년(혜공 15)에서 김유신이 興武大王으로 추봉되는 흥덕왕대 사이로 보는 것에<sup>7)</sup> 큰 이견은 없지만, 찬자인 長淸과 金巖을 동일인으로 보면서 찬술 시기도 원성왕대로 파악하기도 한다.<sup>8)</sup> 반면 편찬 시기를 경문왕-헌강왕대로 내려보는 견해도 있다.<sup>9)</sup>

이러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행록 자체에 대한 專論은 아니어서 찬술 배경과 경위에 대한 이해도 개괄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행록 찬술의 시대적 배경으로 중대 말의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혜공왕대 무열왕과 문무왕을 不遷之主로 삼은 종묘제도 개편에 주목할 것이다. 이것은 두 국왕의 '兩國平定' 공업을 근거로 한 것인데, 이것이 전대와 다른 인식이며 한편으로 김유신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행록의 찬자와 찬술 시기에 대해 다시 짚어보고, 찬술 목적과 영향을 하대 왕실의 수립과 연계하여 살펴볼 것이다. 김유신은 무열왕의 정치적 파트너였지만, 그의 사후 가문의 위세는 하락하였다. 특히 혜공왕대 종묘제도 개편과 金融의 난이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 조건에서 무열왕계의 권위 삭감을 도모하는 하대 왕실의 입장과 정치적 반전을 꾀하는 김유신계와 입장이 합치되면서 행록의 내용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었고, 김유신이 흥무대왕으로 추봉되기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7) 주보돈, 「김유신의 정치지향 :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新羅史學報』 11, 2007.

8) 윤경진, 「新羅 中代 太宗(武烈王) 諡號의 追上과 재해석」, 『韓國史學報』 53, 2013.

9) 전덕재,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의 원전과 그 성격」, 『사학연구』 139, 2020(『삼국사기 잡지·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21).

## II. 『김유신행록』의 찬술 배경

### 1. 7세기 전쟁의 재인식

진덕여왕을 끝으로 진평왕계가 단절되고 진지왕의 손자인 김춘추(무열왕)가 즉위하면서 그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다. 무열왕대에 백제가 멸망하고 문무왕대에는 고구려마저 무너지면서 신라는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신문왕대에는 연이은 모반과 報德國의 반란을 진압하여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였고, 한편으로 종묘제도 정비와 國學 설치, 9州的 정비 등 일련의 개혁을 통해 체제 운영의 기틀을 다졌다. 성덕왕대에는 마침내 溟江 이남의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경덕왕대에는 신개척지에 군현을 설치하고 전국적인 지방제도 정비를 실행하였다.

이어 즉위한 혜공왕대에는 종묘제도 개편이 있었다.<sup>10)</sup> 『삼국사기』 제사지 서문에서는 신라의 종묘제도를 개괄하며 혜공왕대의 조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제36대 혜공왕이 五廟를 始定하였다. 미추왕을 金姓의 始祖로 삼고 태종

10) 혜공왕대 종묘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그간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요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변태섭, 「廟制의 變遷을 통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教育』 8, 1964; 나희라,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韓國史研究』 98, 1997(『신라의 국가제사』, 知識産業社, 2003);李文基,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 改革의 政治的 意味」, 『白山學報』 52, 1999; 蔡美夏,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의 改定」, 『韓國史研究』 108, 2000(『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안주홍, 「신라 혜공왕대의 종묘제 개편과 그 함의」, 『역사와 경계』 111, 2019; 강진원, 「신라 중대 宗廟制 운영과 五廟 始定」, 『歷史學報』 245, 2020; 박남수, 「신라 宗廟制의 정비와 운영 : 중국 종묘제의 변천 및 운영 원리와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49, 2020; 박초롱, 『新羅 國家禮制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대왕·문무대왕은 백제·고구려를 평정하는 데 큰 공덕이 있으므로 아울러 대대로 휘철하지 않는 임금으로 하고 親廟 둘과 더불어 5묘로 삼았다.<sup>11)</sup>

제사지 서문에는 지증왕 때의 神宮 창립에 이어 혜공왕대의 5묘 개정을 서술하면서 “始定五廟”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신라본기에는 신문왕대에 5묘를 제정한 기사가 있다. 곧 687년(신문 7) 祖廟에 제사를 지내면서 태조대왕·진지대왕·문흥대왕·태종대왕·문무대왕을 열거했는데,<sup>12)</sup> 이는 태조와 신문왕의 4대조로 5묘를 구성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제사지 찬자가 혜공왕대의 조치를 ‘始定’이라고 한 것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 그런데 이 ‘시정’은 해당 자료의 찬자가 판단한 것이다. 신궁 설치도 신라본기에는 소지마립간 때의 일로 나오는 것을 볼 때,<sup>13)</sup> 제사지 서문은 신라의 제사 연혁을 정리한 별도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자료에서 혜공왕대 조치를 ‘시정’으로 간주하였고, 제사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때 ‘시정’의 준거는 신문왕 이래 통상적 5묘 운영과 다른 특징이 이때부터 시작된 점에 주목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추왕을 金姓의 시조로 삼았다는 내용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무열왕계에서 신문왕대의 시조 인식이 혜공왕대에 와서 바뀔 이유가 없다.<sup>14)</sup> 따라서 당시

11) 『三國史記』 권32, 雜誌1 祭祀, “至第三十六代惠恭王 始定五廟 以味鄒王爲金姓始祖 以太宗大王文武大王 平百濟高句麗 有大功德 並爲世世不毀之宗 兼親廟二爲五廟”

12)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神文王 7년 4월.

13)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3 炤智麻立干 9년 2월, “置神宮於奈乙 奈乙始祖初生之處也”

14) 시조 설정에 주목하는 것은 태조 星漢을 미추왕이 아닌 閼智나 모호한 존재로 보는 이해와 연결된다(강진원, 앞의 논문, 2020, 164-171쪽). 하지만 왕계가 바뀐 것



조치의 핵심인 무열왕과 문무왕의 不遷之主 지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시 조치가 있었던 구체적인 시점은 나와 있지 않으나 즉위 후 경덕왕을 부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sup>15)</sup> 이 시점에 경덕왕 부묘와 함께 무열왕이 祧遷할 차례가 되기 때문이다.<sup>16)</sup> 5묘는 기본적으로 고정된 始祖와 현 국왕 4대조로 구성된다. 따라서 4대를 넘어가면 종묘에서 위패를 내어와 땅에 묻는 祧遷을 행하게 된다. 신라에서는 형제를 한 대수로 간주했기 때문에 혜공왕대에는 그의 5대조인 무열왕이 조천될 차례였다.

하지만 무열왕은 이미 太宗 칭호를 받아 불천지주로 확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천 대상은 다음 대인 문무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혜공왕은 문무왕까지 불천지주로 삼았다. 이것은 당시 조치의 본령이 문무왕을 불천지주로 삼는 데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부분은 무열왕과 문무왕을 하나로 묶고 그 명분을 ‘양국평정’으로 제시한 점이다.

백제 공멸은 무열왕대에 달성되었으므로 문무왕 단독으로는 ‘양국평정’이 수립되지 않는다.<sup>17)</sup> 무열왕에게는 고구려 평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도 아닌데, 신문왕대에 제시한 太祖(星漢)와 혜공왕대에 제시한 미추왕이 다른 사람일 수는 없다. 제사지는 ‘시정’이라는 의미에 맞추어 종묘의 기준인 시조에 대해 설명한 것이므로 묘호 변경이나 대상자의 교체를 유도할 수 없다.

15) 애장왕대 종묘제도 개편이 재위 2년에 있었던 것에 비추어 혜공왕대의 조치도 재위 초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강진원, 앞의 논문, 2020, 164쪽).

16) 『三國史節要』에서는 종묘제도 개편 시점을 776년(혜공 12)으로 정리하고 있고, 이 시점에 맞추어 ‘始定’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편년체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찬자의 판단에 따라 혜공왕 12년조에 편집한 것일 따름이다. 이러한 편집은 이 해에 있었던 백관 제도의 복구 및 감은사 행차에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

17) 많은 연구자가 ‘양국평정’을 ‘일통삼한’과 같은 의미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7세기 전쟁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고정 관념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백제·고구려 평정은 ‘적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자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통’으로 치환될 수 없고, 공통의 정체성을 상징한 것도 아니므로 三韓의 범주

‘양국평정’의 공업은 무열왕과 문무왕을 묶어야 온전히 수립된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당시 ‘양국평정’의 공업을 내세우기 위해 문무왕을 불천지주로 삼았다는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무열왕은 태조의 정통 후계자라는 태종 칭호의 명분보다 문무왕과 연계하여 수립되는 ‘양국평정’을 주된 명분으로 삼게 되었다. 이는 당시 ‘양국평정’이 새롭게 수립되는 인식임을 보여준다.<sup>18)</sup>

7세기 신라의 전쟁 성과는 백제병합이었다. 671년 「答薛仁貴書」에서 신라는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는데, 이는 “평양이 남이 곧 백제토지”라는 의미이다. 또한 唐은 당시 신라가 점령한 卑列城이 본래 고구려 영토라며 환속을 통보하였고, 신라는 이곳이 본래 자국의 고유 영토라며 반발하였다. 이것은 고구려 영토에 대해 신라가 영유권이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sup>19)</sup> 따라서 당시 전쟁 성과는 백제병합으로 국한되며, 고구려와 관련된 성과를 내세울 여지가 없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답설인귀서」의 다음 구문이 주목된다.

征伐로부터 이미 9년이 지나 人力이 거의 소진되어 마침내 兩國을 비로소 평정하니 累代의 오랜 바람을 오늘에 이루었다. 당연히 나라는 충성을 다한 은혜를 입고, 사람은 힘을 다한 상을 받아야 한다.<sup>20)</sup>

위 기사는 평양 공파 후 신라 병사들이 했다는 말이다. 우선 정벌 이후

---

를 적용할 수 없다. ‘일통삼한’은 ‘양국평정’이 자신을 포함하는 ‘일통삼국’으로 확장되고 다시 여기에 삼한의 정체성이 추가될 때 비로소 수립된다.

18) 무열왕이 ‘일통삼국’의 공업에 따라 태종 칭호를 받았다는 태종 시호 기사는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19) 윤경진, 앞의 논문, 2016①.

20)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 “自征伐已經九年 人力殫盡 終始平兩國 累代長望 今日乃成 必當國蒙盡忠之恩 人受効力之賞”

9년이 지났다는 것은 660년 백제 공멸 후 668년 고구려 공멸에 이르는 기간을 말하며, 양국의 평정은 “累代の 長望”이 실현된 결과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주체가 신라라고 보면 신라가 당시에 ‘백제와 고구려의 평정’을 도모하고 실현했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러한 맥락으로 보기 어렵다. 나라가 盡忠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말은 고구려 공멸에 신라가 기여했으므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신라가 자신의 장망을 이루었는데 당에게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長望을 성취한 주체는 당이고, 신라는 그것에 기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글의 서두에 인용된 당 태종의 언급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고려를 정벌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 신라가 兩國에 끼어있어 매번 침구를 받아 편안한 해가 없음을 불쌍히 여긴 것이다. (중략) 내가 兩國을 평정하면 평양이남의 백제토지를 모두 너희 신라에 주어 길이 편안케 할 것이다.<sup>21)</sup>

위에서 당 태종은 자신의 고구려 원정이 신라를 위한 것임을 표방하고, “양국을 평정”한 뒤에 백제 토지를 신라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당 태종이 실제 당시부터 백제 평정까지 도모한 것인지는 짚어볼 문제이지만, 적어도 신라의 인식에서 양국의 평정은 태종이 천명한 사업이다. 따라서 뒤에서 말한 ‘누대’는 무열왕과 문무왕이 아니라 당의 태종과 고종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신라가 요구한 盡忠의 대사는 태종이 약속한 백제

21)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 “朕今伐高麗 非有他故 憐你新羅 攝乎兩國 每被侵陵 靡有寧歲 (중략) 我平定兩國 平壤已南百濟土地 並乞你新羅 永爲安逸”

토지의 사여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라의 바람에 대해 李勤은 “신라는 앞서 군기를 놓쳤으니 또한 계산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新羅前失軍期 亦須計定]”라고 하였다. 또한 공로자 명단을 적어 당으로 보냈는데, 당은 “지금 신라는 아슬러 공이 없다[今新羅並無功]”라고 하였다. 결국 신라는 고구려 공멸에서의 공헌을 내세울 뿐이며, 그마저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신라 자신이 ‘양국평정’의 주체로 자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이다.

한편 문무왕이 남긴 遺詔에 고구려 평정을 유추할 수 있는 구문이 있지만, 이 또한 검증이 필요하다.

과인은 운세가 혼란에 속하고 시대는 전쟁을 당하여 서쪽과 북쪽으로 征討하여 마침내 영토를 획정하였다. 반역을 토벌하고 우호를 불러와 이에 멀고 가까운 곳을 안정시켰다. 위로 선조가 남긴 염려를 위로하였고 아래로 父子의 오랜 원한을 갚았다. 산 자와 죽은 자에게 두루 상을 주었고, 内外에 고르게 베풀을 주었다.<sup>22)</sup>

위 구문은 유조의 도입부로서 자신의 치세를 총평한 것이다. 뒤에는 민생 안정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진다.

여기서 우선 “西征北討”라는 구문이 주목된다. 西征은 백제 공멸을, 北討는 고구려 공멸을 각각 나타낸다. 문무왕은 태자 때 백제 공격에 나섰고, 즉위 후에는 고구려 공멸에 참여했으므로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것이 ‘양국평정’의 공업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앞 구문의 “運屬紛紜 時當爭戰”은 혼란과 전쟁의 시기에 즉위했

22)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21년 7월 1일, “寡人運屬紛紜 時當爭戰 西征北討 克定疆封 伐叛招携 聿寧遐邇 上慰宗祧之遺顧 下報父子之宿冤 追賞遍於存亡 疏爵均於内外”

다는 것이고, “西征北討”는 이로 인해 수행해야 했던 전쟁을 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克定疆封”은 그 결과로 확보된 영토를 표상한다. 이 영토는 나당전쟁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서 「답설인귀서」에서 문무왕 자신이 주장한 “평양이남 백제토지”의 확보를 지향한다. 다만 당이 승인하지 않아 신라의 영토는 예성강선에 그쳤다.

그런데 이 땅을 신라에게 주겠다는 당 태종의 약속은 양국의 평정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답설인귀서」의 내용은 고구려까지 공멸했고 여기에 신라가 기여했으니 약속을 지키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복토’가 고구려 공멸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신라가 백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일 뿐이다. 곧 이 내용으로부터 신라의 고구려 평정이라는 공업은 유도되지 않는다.

이러한 속성은 이어지는 구문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구문의 구조를 보면, “運屬紛紜 時當爭戰”은 “西征北討 克定疆封”의 배경이 되며, “上慰宗祧之遺顧 下報父子之宿冤”은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전반부의 宗祧는 종교에 봉안된 先王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무열왕을 가리키며, 遺顧는 그가 완결하지 못한 사업을 나타낸다. 곧 문무왕이 무열왕의 사업을 계승하여 완성했다는 취지를 국왕이라는 공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무열왕 때 백제가 망하기는 했으나 부흥운동이 계속되고 있었고, 당의 熊津都督府 설치로 신라가 백제 토지를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열왕의 사업은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문무왕은 나당전쟁을 통해 무열왕의 사업을 완성하고자 한 것이다.

후반부는 大耶城에서 무열왕의 딸과 사위가 죽은 것을 보복했음을 말한 것이다. 보복의 내용은 곧 백제 병탄이다. 그 의미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수록된 김춘추의 고구려 청병 기사에서, 김춘추가 대야성 함락 소식을 듣고 “대장부가 어찌 백제를 병탄할 수 없단 말인가[大丈夫豈不能

呑百濟乎]”<sup>23)</sup> 라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慰宗祧之遺顧”와 “報父子之宿冤”은 같은 내용으로서 백제병합으로 귀결된다.

이번에는 「문무왕릉비」의 내용을 살펴보자. 문무왕의 유조가 자신의 공업에 대한 자평을 담고 있다면, 「문무왕릉비」는 비를 건립할 당시의 인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사후적으로라도 그의 공업을 ‘양국평정’으로 평가했는지 엿볼 수 있다. 현재 두 개의 비편만 남아 있어 온전한 파악은 어렵지만, 적어도 남아 있는 부분에서 고구려 평정의 공업을 확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구문이 주목된다.

(결락) a. 派 鯨津[之]映 三山之關 b. 東拒開梧之境 南鄰□桂之□ c. □  
接黃龍駕朱蒙 □□□承白武 (결락)

편의상 구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a 부분은 현재 “派鯨津氏 映三山之關”로 나누어 읽고 있다.<sup>24)</sup> 그런데 ‘鯨津’과 ‘三山’이 대구를 이루는 구도라는 점에서 ‘氏’는 ‘之’일 가능성이 높고 ‘映’은 앞 구문에 붙어야 할 것으로 본다.

‘鯨津’은 “고래가 사는 큰 바다” 정도로 번역하고 있다. 銘에서도 “粉骨鯨津”이라는 구문이 보이는데, 이는 문무왕의 해중릉을 입증하는 근거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진’은 실물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다. 이는 고려 성종 2년 宋이 보낸 책봉문에서 “삼한의 옛 구역과 백제가 남긴 봉토를 차지하니 그 땅이 鯨津을 장악하고 정성은 천자를 받든다[其有三韓舊域 百濟遺封 地控鯨津 誠尊象

23)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11년.

24) 『譯註韓國古代金石文(II)』 文武王陵碑.

關]”<sup>25)</sup> 라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 여기서 경진은 “三韓舊域” 및 “百濟遺封”을 아우르는 공간을 나타낸다.

이 구문 앞에는 “四海를 열어 一家로 삼았고, 六合을 一統하여 집을 빛냈다[關四海以爲家 一六合而光宅]”라고 하여 四海와 六合, 곧 천하를 아우르는 천자의 위상을 밝히고 있다. 경진은 천자의 사해에 대응하여 제후인 고려를 나타낸 말로서 海東과 같은 의미이다.<sup>26)</sup>

鯨津과 대구를 이루는 三山은 분명치 않지만 제사지에 大祀로 나오는 三山이 아닐까 한다. 김유신 설화에 신라의 護國神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가 신라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이러한 삼산의 이미지는 「聖德大王神鍾」의 銘에 보이는 “동해 가에 여러 신선이 숨어 있는 곳[東海之上 衆仙所藏]”과도 연결된다.<sup>28)</sup> ‘衆仙所藏=三山=新羅’의 인식 구도이다.

이어지는 b와 c는 이곳을 구획하는 東西南北 경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 중 b는 동쪽과 남쪽 경계를 표현한 것이다. 開梧는 『呂氏春秋』에 동쪽의 아득히 먼 곳에 있다고 언급된 부류로서<sup>29)</sup> 특정한 국가가 아니라 막연히 동쪽 끝에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 ‘口桂’도 같은 맥락에서 남쪽 경계를 표상하는 말로 추정된다.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신라의 동쪽과 남쪽이 바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는 나머지 두 방향에서 실제 접하고 있는 隣國을 나타낸다. 朱蒙은 그 이름에서 고구려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口接”에서 그 내용이 ‘인접’을 나타낸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결락된 앞 글자는 ‘北’

25) 『高麗史』 권3, 成宗 2년 3월 戊寅.

26) 鯨津과 비슷한 원리에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명칭으로는 鯤峯(鯤壑)이 있다.

27) 鶴嶺이 고려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28) 『譯註韓國古代金石文(Ⅲ)』 聖德大王神鍾.

29) 『呂氏春秋』 5, 審分覽, “十里之間而耳不能聞 帷牆之外而目不能見 三畝之宮而心不能知 其以東至開梧 南撫多嬰頁 西服壽靡 北懷儋耳 若之何哉.”

이 될 것이다. 白武는 흰색이 서쪽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백제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은 고구려나 백제에 대한 ‘征討’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라의 동서남북을 나타내면서 ‘인접’을 표현한 것일 따름이다. 실상이 구문은 비문의 2행에 자리하고 있어 문무왕의 공업을 서술할 위치가 아니다. 신라의 공간적 위치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일 따름이다.<sup>30)</sup>

이처럼 중대 초기 왕실은 7세기 전쟁을 백제병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구려 공멸을 포함하는 ‘양국평정’은 당 태종의 사업이었고, 고종이 이를 계승하여 실현하는 과정에 신라가 기여함으로써 태종의 약속대로 백제 영토를 병합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나당전쟁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성덕왕대 패강 이남을 공인받음으로써 실현되었다.

그런데 해공왕대 종묘제도를 개편하면서 ‘양국평정’의 공업을 표방하고 이를 근거로 무열왕과 문무왕을 불천지주로 삼은 것은 7세기 전쟁에 대한 신라의 인식이 바뀐 것을 보여준다.<sup>31)</sup> 바로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힘으로써 제사지에서는 해공왕대의 조치를 “始定五廟”로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공왕대의 정치적 과제와 관련되는데, 다음 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30) 앞서 필자는 朱蒙이 고구려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구절은 고구려 정복을 나타낸다고 보았으나(윤경진, 「신라 통일기 금석문에 나타난 天下觀과 歷史意識 : 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 고찰」, 『史林』 49, 2014, 186-187쪽) 해당 구절이 비문의 서두라는 점과 앞의 동쪽과 남쪽에 대한 설명을 감안할 때 “駕朱蒙”과 “承白武” 또한 고구려와 백제의 ‘평정’보다는 ‘접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의견을 수정한다.

31) 이전에도 관념적으로 ‘양국평정’을 표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백제병합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해공왕대의 종묘제도 개편은 ‘양국평정’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



## 2. 종묘제도 개편의 목적과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답설인귀서」나 문무왕 유조, 「문무왕릉비」 등에서 7세기 전쟁을 ‘양국평정’으로 평가하는 인식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국평정’의 공업은 7세기에 수립된 인식이 아니라 중대 말에 7세기 전쟁을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왜 이러한 재평가가 나오게 된 것일까. 무열왕과 문무왕의 불천지주 지정 문제는 해공왕 즉위 초 경덕왕을 부묘할 때 제기되는 것이므로 그 배경 또한 해공왕 즉위를 전후한 시대적 상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sup>32)</sup>

주목할 부분은 해공왕이 불과 8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는 점이다. 태후가 섭정했지만 국왕으로서 권위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경덕왕 때부터 이미 배태되고 있었다.

경덕왕은 소성왕의 同母弟이고, 소성왕은 성덕왕의 제2자이다. 성덕왕의 장자는 부추한 것으로 짐작되며 소성왕에게도 아들이 없어 경덕왕이 태자가 되어 왕위를 이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경덕왕은 특히 후계자 문제에 부심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첫 부인인 三毛夫人이 자식이 없어 出宮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sup>33)</sup>

그런데 후계자인 해공왕은 758년(경덕 17)에 태어났다.<sup>34)</sup> 해공왕의 모후인 滿月夫人은 743년(경덕 2)에 들어왔으므로<sup>35)</sup> 15년의 공백이 있었

32) 당시 종묘제도 개편에 대해 무열왕계의 결속을 강화한다거나 金良相 세력과 갈등을 빚었다고 보는 등 정치세력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공왕 사후 전개되는 정치사에 맞추어 소급 해석한 것이다. 개편 배경이나 의미는 해공왕 즉위가 가지는 조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33) 후계자 문제에 대한 경덕왕의 관심과 삼모부인의 사적에 대해서는 김선주, 「신라 경덕왕대 삼모부인(三毛夫人)의 생애와 정치적 의미」, 『歷史學研究』 44, 2011 참조.

34) 『삼국사기』에는 경덕왕 17년 王子의 출생 기사가 있는데, 이는 해공왕 출생을 가리킨다(『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景德王 17년 7월 23일, “王子生”).

던 셈인데, 그 사이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東宮의 운영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745년(경덕 4)에 동궁을 修葺하였고,<sup>36)</sup> 750년(경덕 9)에 東宮衛官을 두었다.<sup>37)</sup> 태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있기 어렵다고 보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앞서 아들이 있었고 그가 태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동궁 수축은 아들의 출생에 따라, 아관의 설치는 태자 책봉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후 태어난 혜공왕이 ‘嫡子’로 즉위한 것을 볼 때 앞서 동궁을 사용한 태자는 일찍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시점은 알 수 없으나 754년(경덕 13)에 聖德王碑를 세운 것은<sup>38)</sup> 후계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성덕왕 사후 10여 년이 지나 비를 세웠다는 것은 이 시기에 성덕왕의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생겼기 때문인데, 이는 후계자가 없어진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곧 聖德王碑의 건립을 통해 선왕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후계자가 없어진 정치적 위기에 대응한 것이다.

이후 경덕왕은 760년(경덕 19) 왕자 乾運(혜공왕)을 태자로 책봉하였다.<sup>39)</sup> 그는 불과 3세의 나이로 태자가 된 것이다. 이는 그만큼 후계자 지명이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sup>40)</sup>

35)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景德王 2년 4월, “納舒弗邯金義忠女爲王妃”

36)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景德王 14년 7월, “葺東宮”

37)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景德王 11년 8월, “置東宮衛官”

38)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景德王 13년 5월, “立聖德王碑”

39)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景德王 19년 7월, “封王子乾運爲王太子”

40) 이전 시기 태자가 책봉될 때의 나이를 알 수 없어 단정은 어렵지만, 경덕왕의 동궁 수리와 아관 설치 사이의 시차가 5년인 것을 볼 때 6세 정도에 태자 책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혜공왕이 3세에 태자로 책봉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빠른 것이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태자로 책봉된 만큼 후계자로서 입지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바로 聖德大王神鍾의 조성이다. 이 종은 771년(혜공 7)에 완성되었는데, 비문 중에 경덕왕이 발원하여 조성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그 시점이 ‘頃者’라고 되어 있어 경덕왕 말년에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성덕왕비를 세운 상황에서 다시 그를 기리는 종을 조성하는 것은 다시금 성덕왕의 권위를 환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 후계자와 무관할 수 없다.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경덕왕의 건강 문제 같은 사정이 개재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는 어린 후계자의 정치적 취약성을 선왕의 권위로 메우고자 한 것인데, 앞서 비를 세웠기에 이번에는 종을 주조한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경덕왕은 자신과 후계자가 성덕왕의 왕통을 계승한 존재임을 과시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경덕왕의 우려는 혜공왕이 8세의 나이로 즉위하면서 현실이 되었다. 이것은 혜공왕 즉위 초에 유달리 재변 기사가 많이 등장하는 것에서 표상된다.<sup>41)</sup> 곧 766년(혜공 2) 정월에 “二日並出”의 현상이 있었고,<sup>42)</sup> 2월에는 소가 5개의 다리를 가진 송아지를 낳았는데, 다리 하나는 위를 향했다고 한다.<sup>43)</sup> 또한 康州의 땅이 꺼져 못이 되었는데 물의 색이 靑黑이었다.<sup>44)</sup> 10월에는 하늘에서 북 같은 소리가 났고,<sup>45)</sup> 이듬해 6월에는 지진이 있었다.<sup>46)</sup> 이러한 일련의 재변은 혜공왕 즉위 초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41) 혜공왕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재변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서영교, 「신라 혜공왕대의 星變과 政變」, 『民族文化論叢』 31, 2005; 이기봉, 「신라 혜공왕대의 薦擧와 災異」, 『新羅文化』 51, 2018 참조.

42)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惠恭王 2년 정월.

43)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惠恭王 2년 2월.

44)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惠恭王 2년 2월.

45)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惠恭王 2년 10월.

투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二日並出”은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땅에는 두 임금의 없다[天無二日 土無二王]<sup>47)</sup> 라는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현 국왕에 대한 도전의 암시한다.<sup>48)</sup> 五脚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一脚向上”이라는 말은 반역의 상징이 아닐까 한다. 이 역시 이후 전개되는 변란을 암시하는 것이다.<sup>49)</sup>

혜공왕이 변란 와중에 피살되는 기사의 도입부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왕은 어려서 즉위하였고 장성해서는 聲色에 빠져 절도 없이 놀러 다녔다. 기강이 문란해져 災異가 자주 일어나고, 인심이 反側하여 사직이 위태하였다.<sup>50)</sup>

위 기사는 장성한 이후의 사정을 말하는 구도이지만, 그 단서는 어려서 즉위한 것에서 찾고 있다. 재변 기사가 즉위 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혜공왕대에는 여러 차례 모반이 발생하였다. 768년(혜공 4) 大

46)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惠恭王 3년 6월.

47) 『高麗史』 권2, 太祖 18년 10월 壬戌.

48) 이것은 2년 뒤에 발생한 大恭의 난과 관련하여 편년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辛鍾遠, 「古代의 日官과 巫 : 샤머니즘의 政治思想史的 意義」, 『國史館論叢』 13, 1990, 28쪽).

49) 768년(혜공 4) 6월에도 다수의 재변이 연이어 발생했는데(『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惠恭王 4년 6월, “京都雷雹傷草木 大星隕皇龍寺南 地震聲如雷 泉井皆渴 虎入宮中”), 곧이어 7월에 대공의 난이 발생하였다.

50)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惠恭王 16년, “王幼少即位 及壯 淫于聲色 巡遊不度 綱紀紊亂 災異屢見 人心反側 社稷阨隍”

恭의 난에 이어<sup>51)</sup> 770년에는 金融의 난이 있었고,<sup>52)</sup> 775년에도 金隱居와 廉相의 모반이 연달아 있었다.<sup>53)</sup> 그리고 결국 혜공왕이 780년 志貞의 반란 외중에 피살됨으로써<sup>54)</sup> 중대 왕실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란은 어린 국왕의 즉위에서 이미 예견되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모색되었을 것이다. 이 중 이념적 차원에서 모색되는 방안으로 대표적인 것이 정통성의 강화이다. 곧 선대 국왕의 권위를 통해 후사왕의 왕위를 보증함으로써 현실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경덕왕이 성덕왕을 통해 이러한 정치적 효과를 도모했다면, 혜공왕 즉위 후에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이에 왕계의 출발이 되는 무열왕과 문무왕을 불천지주로 삼음으로써 그 후계자인 혜공왕에게 확고한 명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때 불천지주로 삼는 명분으로 '양국평정'을 제시하였다.<sup>55)</sup>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인식은 백제병합이었는데, 여기에 고구려를 포함하는 '양국평정'으로 확대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인식 전환의 매개로 736년(성덕 35) 溟江 이남의 영유권을 공인받은 사실이 주목된다.<sup>56)</sup> 신라의 전쟁 목적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백제를 병탄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당의 '양국평정'을 통해 얻어

51)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惠恭王 4년 7월, “一吉浪大恭 與弟阿浪大廉叛 集衆圍王宮三十三日 王軍討平之 誅九族”

52)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惠恭王 6년 8월, “大阿浪金融叛 伏誅”

53)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惠恭王 11년 6월, “伊浪金隱居叛 伏誅”

54)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惠恭王 16년 4월, “上大等金良相與伊浪敬信 擧兵誅志貞等 王與后妃爲亂兵所害”

55) 성덕왕이 김유신의 손자 윤중을 疏遠한 신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회에 부르면서 “신라의 안녕은 김유신 덕”이라고 말한 취지를 생각하면, 국가의 번영이 두 국왕 덕이라는 평가가 후사왕에게 강력한 정치적 명분이 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56)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35년 6월.

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라가 백제 토지에 대한 영유권을 내세울수록 고구려를 배제하는 구도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신라가 패강 이남, 곧 “평양이남 백제토지”를 공인받아 숙원을 해결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내걸었던 명분에 구애될 필요가 없어졌다. 신라는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7세기 전쟁을 자신의 공업으로 표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조건이 해공왕 즉위를 계기로 정치 이념으로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양국평정’이라는 확대된 공업을 내세우려면 무열왕과 문무왕을 하나의 공업으로 묶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것이 불천지주 지정을 통해 확증되었고, 그 권위는 종묘 제사를 받드는 후사왕들에게 전승될 수 있었다. 이것은 어린 나이에 즉위한 해공왕의 왕통을 보증하는 이념으로 유효한 것이었다.

그런데 7세기 전쟁에 대한 재인식은 김유신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무왕이 무열왕과 묶여 공업의 주체가 되면 기존에 무열왕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김유신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대로 무열왕과 김유신의 연대가 부각되면 문무왕은 부수적 의미에 머물게 된다. 무열왕을 놓고 문무왕과 김유신이 길항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김유신 현의와의 대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서사는 문무왕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묘제도 개편과 유사한 요소를 가진다. 그런데 문무왕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서 양자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김유신은 임종에 앞서 찾아온 문무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臣이 어리석고 不肖하니 어찌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 있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현명한 왕이 부리는 데 의심이 없었고 임무를 맡기는 데 두 마음을

갖지 않았기에 왕의 현명함을 거들어 작은 공로를 이루어 三韓이 一家가 되고 백성은 二心이 없게 되었으니 비록 太平에 이르지지는 않았더라도 역시 小康이라 이를 만합니다. 신이 보건대 예로부터 왕업을 계승한 임금은 모두 시작은 있지만 끝내 결실을 맺은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 대의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주 애통한 일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成功이 쉽지 않음을 알고 守成이 또한 어려움을 생각하여 小人을 멀리하고 君子를 가까이 함으로써 조정은 위에서 화합하고 백성은 아래에서 편안해지며, 禍亂이 일어나지 않고 基業이 무궁하게 되면 신은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sup>57)</sup>

위의 헌의는 “三韓爲一家”라는 구문을 통해 7세기 삼한일통의식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書經』의 구절을 인용하거나 君子·小人의 분별을 강조하는 등 武將으로서 김유신의 활동과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고, 서사 자체가 魏徵의 遺表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것이어서 후대에 가공된 것임이 분명하다.<sup>58)</sup>

그런데 위 서사는 문무왕에 대한 인식이 투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이것은 “成功이 쉽지 않음을 알고 守成이 또한 어려움을 생각하라”는 당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여기서 성공은 7세기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을 말한 것으로 그 주체는 무열왕이다. 그리고 문무왕은 이와 대비되는 수성의 군주로 설정되어 있다. 그에 앞서 “繼體之君”을 말한 것도 문무왕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결국 무열왕과 문무왕의 치세는 성공과 수성으로 구분된다.

57) 『三國史記』 권43, 列傳3 金庾信 下 “臣愚不肖 豈能有益於國家 所幸者 明上用之不疑 任之勿貳 故得攀附王明 成尺寸功 三韓爲一家 百姓無二心 雖未至太平 亦可謂小康 臣觀自古繼體之君 靡不有初 鮮克有終 累世功績 一朝隳廢 甚可痛也 伏願殿下知成功之不易 念守成之亦難 疏遠小人 親近君子 使朝廷和於上 民物安於下 禍亂不作 基業無窮 則臣死且無憾”

58) 윤경진, 앞의 논문, 2016②, 69-70쪽.

이 구도에서 김유신은 무열왕과 함께 성공을 이룬 주역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가 이룬 “尺寸의 공”은 곧 “三韓爲一家”이며, 이에 힘입어 신라의 상황이 小康은 된다고 평가하였다. 이 성과는 明王의 任用に 힘입은 것인데, 이 명왕은 무열왕이다. 결국 김유신 현의는 7세기 전쟁의 공업이 무열왕과 김유신에 의해 달성되었으며, 문무왕은 이를 이어받는 수성의 군주라고 규정한 것이다.

반면 혜공왕대 종묘제도 개편에서 문무왕은 무열왕과 함께 ‘양국평정’을 이루었으므로 그 또한 성공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공업에서 김유신은 신하로서 역할만 인정된다. 김유신 현의는 김유신을 ‘양국평정’의 주역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묘제도 개편의 의미에 대한 반론의 속성을 가진다.

이처럼 혜공왕 초 문무왕을 무열왕과 묶어 ‘양국평정’의 공업을 수립하고 불천지주로 삼은 것은 그 후손인 혜공왕의 왕통을 확증함으로써 어린 나이에 즉위한 데 따른 취약성을 보강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문무왕의 위상을 선양하는 데 본령이 있으며, 그에 상응하여 무열왕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김유신의 폄강을 수반하였다.<sup>59)</sup>

그러나 혜공왕은 결국 피살되었고 중대 왕실도 막을 내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7세기 전쟁은 백제병합에서 ‘양국평정’으로 재해석되며 체제이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이념은 더 격화된 체제 위기에 대응해야 했던 하대 왕실에게도 유효하였다.

하지만 왕계가 바뀐 상황에서 공업의 주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중대 왕실의 준거인 무열왕과 문무왕의 위상을 삭감

59) 무열왕과 문무왕을 불천지주로 삼은 것이 무열왕계와 김유신계의 결집을 의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이문기, 앞의 논문, 1999, 834-839쪽), 무열왕과의 관계에서 문무왕과 김유신은 대체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문무왕의 불천지주 지정은 김유신을 폄강하는 의미를 가진다.



하는 매개로서 김유신이 활용되는 구도가 드러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록의 찬자와 찬술 시기, 찬술 목적과 의미 등을 하대 왕실의 인식과 관련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Ⅲ. 『김유신행록』의 찬술 경위

#### 1. 찬자와 찬술 시기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찬자는 그 원전인 행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유신의 玄孫인 신라 執事郎 長淸이 지은 行錄 10권이 세상에 유행되는데, 釀辭가 자못 많아 刪落하고 그중에서 기록할 만한 것을 취하여 傳을 만든다.<sup>60)</sup>

위에서 행록의 찬자가 현손 長淸이라는 것과 그 내용에 釀辭, 곧 꾸며낸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청은 執事郎이라는 관직만 나타날 뿐, 더 이상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 김유신 열전에 부록된 金巖이 주목된다. 김유신 열전에는 자녀와 부인에 대한 소개가 있으나 元述의 일화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의 구체적인 사적은 나오지 않는다. 원술의 일화 또한 그에

60) 『三國史記』 권43, 列傳3 金庾信 下 “庾信玄孫新羅執事郎長淸作行錄十卷 行於世 頗多釀辭 故刪落之 取其可書者爲之傳”

대한 김유신의 엄한 질책과 이를 받든 부인의 서사가 중심을 이룬다. 원술의 사적이지만 내용상 주인공은 김유신이다.

그 뒤에 실린 允中の 사적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일화는 두 가지로서 성덕왕이 달구경 때 그를 부른 것과 당의 지시로 신라가 발해를 공격할 때 그를 지휘관으로 발탁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는 김유신 덕에 나라가 평안하다는 성덕왕의 말에 초점이 있고, 후자는 김유신의 후손을 지휘관으로 삼으라는 당의 지시를 신고 있다. 이 또한 그를 통해 김유신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데 본령이 있다.

그런데 윤중에 이어 수록된 김암은 김유신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고, 개인적인 이력과 행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곧 당에 숙위하며 陰陽家法을 배운 것과 귀국 후 司天大博士와 3州의 太守, 執事侍郎과 溟江鎮頭上을 역임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蝗蟲을 퇴치한 일화와 779년(혜공 15)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의 일화가 있다.<sup>61)</sup> 그 뒤에 동년 4월의 취선사 연기설화가 실려 있다.

이처럼 김암 전기는 원술이나 윤중과 달리 본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취지이고, 열전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 입전될 만한 두드러진 서사를 갖춘 것도 아니다. 그가 이런 형태로 김유신 열전에 부록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인데, 그 단서를 『삼국유사』에 실린 태종 시호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사에는 무열왕과 김유신의 ‘一統三國’을 드러내기 위해 당 태종과 魏徵·李淳風의 ‘一統天下’를 대비하고 있다.<sup>62)</sup> 그런데 위징은 태종의

61) 이 일화는 당시 일본국왕이 그의 현명함을 알고 잡아두려 했으나 당의 사신이 알아보는 것을 보고 돌려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의 능력과 함께 중국 유학을 과시하는 취지이다.

62) 『三國遺事』 권1, 紀異 太宗春秋公, “朕之聖考得賢臣魏徵李淳風等 協心同德 一統天下 故爲太宗皇帝”

‘일통천하’와 관련이 없다. 실제 그 역할을 한 인물은 房玄齡이며, 위징은 이후 체제 안정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sup>63)</sup> 다만 이후 태종의 치세를 대표하는 인물로 인식되었다. 이 기사에서 위징을 언급한 것은 무열왕을 당 태종에 견주며 김유신을 위징에 비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순풍이 언급된 것은 다소 엉뚱하다. 이순풍은 陰陽家로 활동했으며, 貞觀 초기 체제 정비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sup>64)</sup> 그렇다고 그가 위징과 함께 태종을 도운 핵심 인물로, 그것도 ‘일통천하’에 기여한 것으로 언급될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일화를 꾸민 찬자가 그를 특별히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징이 김유신을 말하기 위한 장치라면, 이순풍 또한 누군가를 염두에 둔 것인데, 여기서 김암 역시 음양가라는 점이 주목된다.

태종 시호 기사는 무열왕의 태종 칭호를 모티브로 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결국 김유신이 ‘일통삼국’을 이룩한 주역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특히 김유신이 불교의 신적인 33天的 하나라는 내용은 이 설화가 김유신을 띄우기 위해 가공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 원전이 행록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순풍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행록의 찬자가 김암과 관련이 깊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김유신 열전 말미에 김유신의 행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김암의 사적이 실린 것은 그가 찬자로서 자신의 이력을 행록에 담았고 이를 열전 찬자가 채록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sup>65)</sup> 행록의 찬자인 장청이 곧 김암인

63) 『新唐書』 권97, 列傳22 魏徵, “貞觀以前 從我定天下 間關草昧 玄齡功也 貞觀之后 納忠諫 正朕違 爲國家長利 徵而已 雖古名臣 亦何以加”

64) 『新唐書』 권25, 志15 曆1, “貞觀初 直太史李淳風又上疏論十有八事 復詔善爲 課二家得失 其七條改從淳風”

65) 長清과 金巖의 이름 차이는 그가 입당 숙위하면서 稱姓과 함께 改名한 결과로 보인다. 행록의 찬자에 대한 정보는 국내에서 쓰던 이름으로 전승된 반면, 본문에는 재당 활동 때의 이름으로 실린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당에서 활동하던 張保皋가

것이다.<sup>66)</sup>

물론 정황만으로 김암이 장청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태종 시호 기사에 이순풍이 등장하는 것은 김암이 서사의 작성자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 더하여 그의 전기가 보이는 특이한 양상은 충분한 심증을 제공하며, 두 사람의 대수가 같다는 점도 그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행록의 편찬 시기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김유신 열전의 마지막 기사가 혜공왕 말엽의 것임을 고려할 때, 찬술 시기는 여기서 멀지 않을 것이다. '현손'인 장청의 代數를 감안하면 찬술 시기를 중대말-하대초로 보는 데 큰 이견은 없다. 여기에 찬술 배경 내지 목적과 관련하여 왕계의 교체라는 정치 상황까지 고려하면, 원성왕대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듯하다.

그런데 최근 행록의 찬술 시기를 경문왕대로 내려보는 견해가 있어<sup>67)</sup> 이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행록의 찬술 목적 및 그 영향을 가늠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행록의 찬술 시기를 경문왕대로 보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장청의 직함인 執事郎이다. 執事省의 말단 관직인 郎은 경덕왕대 史가 개정된 것으로, 혜공왕대 다시 史로 개정되었다. 행록이 혜공왕대 이전에 찬술되었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그 시점은 史가 다시 郎으로 개정되는 시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한화정책이 적극 추진된 경문왕-현강왕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김유신을 太舒發翰으로 봉했다는 기사이다. 서발한은

---

국내 기록에는 弓福으로 나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66) 윤경진, 앞의 논문, 2013, 240-241쪽.

67) 전덕재, 앞의 논문, 2020, 28-41쪽.

角干의 이칭인 舒弗邯의 이표기인데, 그 사례가 경문왕대 이후에 작성된 자료에만 보이므로 이를 담은 행록 또한 경문왕대 이후에 찬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논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장청이 김유신의 ‘현손’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통상 현손은 손자의 손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그의 활동 연대는 경문왕대까지 내려갈 수 없다. 이에 논자는 현손을 ‘먼 후손’으로 해석했지만, 장청의 사례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김유신은 행록의 주인공이고 장청은 그 후손이다. 선조와의 관계가 중요한 준거라면 그 대수 또한 명확히 밝히는 것이 상식적이다. 선덕왕과 원성왕은 각각 내물왕의 10세손과 12세손으로 명시되어 있고, 애장왕의 외조부 叔明도 내물왕의 13세손이다. 金陽은 무열왕의 9세손으로 나온다. 이처럼 계보 관념에서 대수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데, 김유신을 현창하는 자료를 찬술한 장청 또한 구체적인 대수가 파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68)</sup>

한편 해공왕대 이후 경문왕대까지 김유신 관련 사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찬술 시점을 내려보기 어려운 요소이다. 해공왕대 이후 김유신 관련 기사는 흥덕왕대 興武大王 추봉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추봉 사실만 전하는 아주 단편적인 기사이다.

흥무대왕 추봉은 김유신의 위상을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적이고, 그 시기도 경문왕대와 시차가 크지 않다. 당연히 추봉 논의나 정계의 인식, 추봉에 따른 후속 조치, 이를 모티브로 한 서사 등이 풍부하게 담길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행록이 흥덕왕대 이전에 찬술되었고 추봉 기사는 다른 자료를 통해 사실만 확인된 것임을 보여준다.

68) 일반적으로 먼 후손이라면 ‘遠孫’으로 기재했을 것이다. 굳이 대수에 혼선을 빚을 수 있는 ‘현손’으로 표시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열전 내용이 후손의 억울한 죽음과 김유신의 분노를 담은 취선사 연기설화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 대왕 추봉으로 김유신의 위상이 한껏 높아진 것에 수반하여 김유신계의 복권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행록이 이보다 후대에 찬술되었다면 사적이 김유신의 분노로 마무리될 이유가 없다. 대왕 추봉은 결국 김유신의 분노를 해소하는 행위로서 공덕보 설치보다 훨씬 직접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한 서사가 충실하게 들어갔을 것이다.

이처럼 행록은 경문왕대 이후에 찬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논자가 제기한 문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선 장청의 직함인 執事郎부터 짚어보자. 유의할 점은 집사랑이 장청의 행록 찬술 당시의 관직인가 아니면 前職인가에 따라 그 준거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장청 자신이 서문 등에 본인의 직함을 밝힌 것이 아니라면, 행록의 찬자는 그 이름과 직함, 김유신과의 관계 등이 구전 형태로 전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장청이 혜공왕대 관제 개정 이전에 집사랑을 역임하였고 이것이 그의 이름과 연계하여 전승되었다면, 찬술 시점이 원성왕대라 하더라도 “집사랑 장청”이 나올 수 있다. 원론적으로 장청의 직함은 행록의 찬술 시점을 파악하는 준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sup>69)</sup>

舒發翰 또한 행록의 찬술 시기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기 어렵다. 서발한은 舒弗邯의 이표기이다. ‘伐’과 ‘弗’, ‘發’은 모두 같은 말로서 音借 과정에서 이표기가 나타난 것이다. ‘邯’과 ‘翰’도 마찬가지로 음이 같다.

69) 장청과 김암을 동일인으로 보면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청은 유학을 떠나기 전에 사용하던 이름이고 그때 직함이 집사랑이었다. 그리고 그는 유학 과정에서 이름을 김암으로 고쳤다. 그리고 행록에 수록된 그의 이력은 김암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그가 국내에서 활동할 때 이름은 여전히 장청이었으므로 행록 찬자의 이름도 장청으로 전승되었다. 그런데 장청과 김암의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청의 이력이 개명 이전의 것만 파악된다면 그의 직함이 집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곧 서불한과 서발한은 명칭 개정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표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형이기 때문에 혼용의 여지를 가진다. 실제 국초 이래 쓰이던 서불한도 서발한이 출현한 이후인 효공왕대 기사에 나오고 있어<sup>70)</sup> 양자가 대체 관계가 아님이 드러난다. 따라서 원성왕대 자료에서 서발한이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행록의 찬술 시기를 경문왕대로 내려볼 근거는 없다. 통상적 이해대로 중대말-하대초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중에서도 하대 왕계가 시작하는 원성왕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행록의 찬술 목적 및 영향을 김유신계와 하대 왕실의 입장과 연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찬술 목적과 영향

하대 왕실이 수립되는 원성왕대를 전후하여 행록이 찬술된 후 흥덕왕 때에는 김유신이 흥무대왕으로 추봉되었다. 신하를 대왕으로 추봉하는 예외적인 조치는 무엇보다 김유신의 공업을 각별하게 인정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sup>71)</sup> 행록 찬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곧 행록을 찬술한 목적과 하대 왕실이 이를 수용하는 의도가 같은 맥락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그 함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혜공왕 피살 후 상대등 金良相이 金敬信과 함께 志貞의 난을 제압하고 왕위에 올랐다(宣德王). 그는 즉위 후 부친만 開聖大王으로 추봉하였

70) 『三國史記』 권12. 新羅本紀12 孝恭王 2년 정월, “以舒弗邯俊興爲上大等”

71) 김유신의 흥무대왕 추봉을 김유신계와의 정치적 결탁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신하를 왕으로 추봉하는 예외적 조치는 김유신에 대한 인식을 본령으로 하며, 김유신계와의 정치적 관계는 그에 연동된 것이다(윤경진,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 三韓一統意識 출현의 일 배경」, 『사림』 52, 2015).

다.<sup>72)</sup> 내물왕의 10세손인 그가 親父만 추봉한 것은 자신이 성덕왕의 외손이기 때문이다. 이에 성덕왕을 그대로 두면서 경덕왕만 조천하고 친부를 부묘한 것이다.

그런데 선덕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무열왕계인 金周元과 상대등 김경신 사이에 왕위 경쟁이 벌어졌고 결국 김경신이 승리하였다(元聖王). 그는 내물왕의 12세손으로서 무열왕계와 직접 관련이 없었다. 이에 그는 즉위 후 4대를 추봉했지만, 성덕왕과 개성왕만 철거하고 祖 興平王과 父 明德王을 부묘하였다.<sup>73)</sup> 이처럼 2대만 부묘한 것은 앞서 불천지주가 된 무열왕과 문무왕의 위상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계가 교체되고 원성왕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면서 이들의 위상은 하락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것은 종묘제도에도 반영되었다. 원성왕은 장자 仁謙을 태자로 삼았으나 일찍 죽었다. 다시 왕자 義英을 태자로 삼았으나 그마저도 2년 만에 죽자 인겸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昭聖王). 소성왕은 즉위 후 인겸을 惠忠王으로 추봉하였다.<sup>74)</sup> 원성왕과 혜충왕이 부묘되면서 원성왕 때 부묘되었던 흥평왕과 명덕왕이 조천되었다.<sup>75)</sup>

소성왕에 이어 애장왕이 즉위하면서 5묘 구성이 전면 개편되었다.<sup>76)</sup>

72)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宣德王 원년.

73)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元聖王 원년 2월. 이 조치는 즉위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덕왕은 처음부터 부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4)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昭聖王 원년 5월.

75) 애장왕 때의 5묘에는 명덕왕이 들어있어 앞서 혜충왕이 부묘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소성왕이 추존한 생부를 부묘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후술하듯이 애장왕 때 무열왕과 문무왕을 別廟로 옮기면서 한꺼번에 두 자리가 생김으로써 대수에 맞춰 명덕왕이 다시 부묘된 결과로 보인다.

76) 신라의 종묘제도 전반을 다룬 논고 외에 애장왕대 개편을 주요하게 다룬 논고로는 다음이 있다. 채미하, 「애장왕대 오묘제의 경정」, 앞의 책, 2008; 최홍조, 「신라 애장왕대의 정치개혁과 그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54, 2009; 안주홍, 「신라 애장



소성왕 즉위 후 시조와 무열왕, 문무왕, 그리고 원성왕과 혜충왕이 들어간 상황에서 앞의 3대가 모두 불천지주이므로 소성왕을 부모하면 원성왕이 나갈 상황이었다. 그러나 왕계의 출발인 원성왕이 바로 조천될 수는 없었다.

이에 애장왕대에는 종묘제도 운영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개편을 가하였다. 하나는 조천 대상이 된 원성왕을 불천지주로 삼는 것이다. 원성왕의 조천 문제가 애장왕대 개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원성왕이 불천지주가 되었음은 그에게 중흥주를 나타내는 烈祖 묘호가 追上된 것에서 확인된다.<sup>77)</sup> 열조 묘호의 추상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애장왕 즉위에 따라 조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때 추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소성왕 때 올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무열왕과 문무왕이 불천지주로 수립되어 있고 원성왕과 혜충왕을 함께 부모하는 상황에서 원성왕을 곧바로 불천지주로 지정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애장왕 즉위 후 논의에서 불천을 확정하고 열조 묘호를 올린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sup>78)</sup>

다른 하나는 무열왕과 문무왕을 別廟로 옮긴 것이다. 원성왕을 불천지주로 삼으면서 자리는 하나만 남게 되는데, 이것으로는 종묘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 다만 이미 불천지주로 수립된 두 국왕을 갑자기 조천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기존 불천지주의 위

왕대의 종묘개편과 천자 지향], 『嶺南學』 73, 2020; 박초롱, 「신라 하대 왕실의 종묘제 운영과 그 여파」, 『사림』 81, 2022.

77) 원성왕의 烈祖 묘호는 『삼국사기』에는 보이지 않으나 최치원이 찬술한 「崇福寺碑」에서 확인된다(『譯註韓國古代金石文(III)』崇福寺碑“金城之离 日觀之麓 有伽藍號崇福者 乃先朝嗣位之初載 奉爲烈祖元聖大王園陵追福之所修建也”).

78) 무열왕의 태종 묘호도 문무왕대에 올린 것이 아니라 신문왕 때 5묘를 정비하면서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3, 222-234쪽).

상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5묘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별묘를 채용한 것이다. 이로써 애장왕은 4대조를 온전히 부모할 수 있게 되었고,<sup>79)</sup> 이를 통해 원성왕의 정통 계승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보강할 수 있었다. 애장왕 또한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당시 조치는 혜공왕대의 조치와 같은 속성을 가진다.

이처럼 무열왕과 문무왕의 별묘 이동은 불천지주라는 위상을 전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현실적으로 5묘에 있을 때와 같은 권위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sup>80)</sup> 이것은 물론 원성왕 즉위부터 이미 전망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김유신계의 동향이 주목된다. 김유신의 누이가 무열왕비가 되었고 그 소생이 문무왕인 만큼 그의 정치적 비중은 각별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후손에게 안정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sup>81)</sup> 그나마 김유신의 아들들에게는 부친의 후광이 작동했겠지만, 김유신 사후 그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수가 손자대로 가면 벌써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다.

嫡孫 允中은 성덕왕 때 대아찬에 이르렀는데, 중추절 달구경에서 성덕왕이 그를 부르자 측근이 “疎遠之臣”까지 부를 이유가 있냐고 만류하였

79)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哀莊王 2년 2월, “謁始祖廟 別立太宗大王文武大王二廟 以始祖大王及王高祖明德大王曾祖元聖大王皇祖惠忠大王皇考昭聖大王爲五廟”

80) 5묘에 별묘 2실을 둔 것에 대해 친자 7묘의 관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별묘 2실은 기본적으로 5묘를 유지하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별묘는 명분적으로 권위 유지를 위해 만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권위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이중성을 가진다. 통상 전자에 무게를 두고 보지만 후자의 측면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이 부분에서 이견이 있지만, 굳이 어느 한쪽을 규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81) 일찍이 김유신 사후 그 가문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기백, 앞의 논문, 1987, 99-101쪽).

다. 이에 성덕왕은 그의 조부인 김유신의 공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그를 불렀다고 한다.<sup>82)</sup>

이 일화는 김유신 덕에 신라가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일화가 제시된 것이나 그 과정에서 윤증을 “소원한 신하”로 표현한 것은 실제로 김유신의 후손이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sup>83)</sup>

한편 열전에서 윤증에 대해 ‘적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눈길을 끈다. 김암에 대해서는 윤증의 ‘庶孫’으로 적고 있어 嫡庶의 구분의식이 나타난다. 이것은 김유신의 아들들에게도 적용되는데 三光 이하 5남 4녀는 智炤夫人의 소생으로 되어 있고, 庶子 軍勝을 따로 언급하였다. 따라서 삼광 등이 적자가 되는데, 이는 물론 조선시대와 같은 妻妾 개념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가계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한 결과로 짐작된다.<sup>84)</sup>

그런데 현실적으로 삼광 등은 지소부인의 소생이 될 수 없다. 지소부인은 무열왕의 3녀로서 655년(무열 2)에 김유신에게 下嫁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85)</sup> 김유신은 673년 79세로 사망하므로 지소와 결혼할 때 나이는 이미 60세가 넘었다. 따라서 삼광 이하 자녀들은 김유신 본부인의 소생일 것이다. 지소는 소생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김유신 사후 비구니가 된

82) 『三國史記』 권43, 列傳3 金庾信 下.

83) 윤증의 일화는 김유신 가문의 쇠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윤증을 성덕왕과 밀착된 핵심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조범환, 앞의 논문, 2007, 65-57쪽). 그러나 이 일화는 김유신의 공업을 통해 정치적 疎遠을 반박하는 취지를 가진다. 실제 지위 하락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疎遠’을 모티브로 하는 일화가 나올 이유가 없다.

84) 이는 윤증의 庶孫인 김암이 자신의 핸디캡을 선대의 적통을 내세워 보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85)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武烈王 2년 10월, “王女智炤 下嫁大角滄庾信”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신라본기에는 712년(성덕 11)에 김유신의 妻를 夫人으로 봉작하고 매년 穀 1천 석을 내려주도록 한 조치가 보인다.<sup>86)</sup> 김유신 열전에는 지소부인에게 南城租 1천석을 내려주도록 한 기사가 있는데, 두 기사는 같은 내용으로 파악된다.

지소가 이때 비로소 부인으로 봉작된 것은 김유신 사후에도 그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나이로 볼 때 지소는 무열왕의 側室 소생으로 정략결혼에 이용된 경우로 이해된다. 김유신의 누이가 무열왕비가 된 만큼 이미 김유신의 본부인이 봉작되었을 것이다.

지소가 무열왕의 딸이고 김유신의 부인임에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김유신의 자손들 또한 정치적으로 소외될 소지가 농후하다. 성덕왕이 지소와 윤중에 보인 예우를 수록한 것은 이러한 소외 상황에 대한 반론의 속성을 가진다.

그리고 행록에서 김유신의 자녀들이 지소의 소생인 것처럼 변개한 것은 후손에 대한 예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소가 무열왕의 딸이라는 점을 내세우되 측실 소생인 점은 숨긴 것이다. 지소가 무열왕의 嫡室 소생이자 김유신의 本妻이고 삼광 등이 지소의 소생이라면, 이들은 무열왕의 外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대수가 더 내려가 해공왕대에 이르러 김유신 가문의 몰락은 더 가속되었다. 특히 김유신의 위세 자체가 삭감되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전술한 해공왕대 종묘제도 개편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조치는 무열왕과 문무왕을 묶어 7세기 전쟁의 주역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문무왕의 부각에 상응하여 김유신의 비중 축소가 유도되었다. 가문의 위세가 하락하는 상황

86)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11년 8월, “封金庾信妻爲夫人 歲賜穀一千石”

에서 이 조치는 김유신계의 정치적 도태를 전망하는 것이었다.

김유신계가 모반에 연루되는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삼국유사』에 실린 취선사 연기설화를 보면, 庚戌年에 김유신의 후손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는 서술이 나온다.<sup>87)</sup> 이것은 金融의 난에 김유신 후손이 연루되어 화를 입은 일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88)</sup>

김유신 후손의 모반 연루는 정치적 불만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로서 이전 시기의 정치적 위축을 시사한다. 그리고 모반의 실패는 김유신 가문에 더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김용의 난과 김유신계의 피화는 행록을 찬술하게 되는 결정적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행록의 내용이 결국 중대 왕실에 대한 항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취선사 연기설화에서 김유신이 자신의 공업을 輔時·救難·匡合으로 열거한 뒤 후손이 ‘죄 없이’ 화를 입은 것을 지적하고, “군신이 나의 공렬을 생각하지 않는다[君臣不念我之功烈]”라고 한 것은 결국 김유신계가 무열왕계에게 전하는 말이다. 곧 행록의 찬술은 김유신계가 가문의 몰락에 대응하여 위세의 근거인 김유신의 공업을 내세움으로써 반전을 꾀한 작업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열왕계의 단절과 원성왕계의 수립은 김유신계에게는 기회가 되었다. 일견 무열왕과 김유신의 관계를 볼 때 무열왕계의 단절이 김유신계의 위기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sup>89)</sup> 이미 혜공왕대에 큰 타격을

87) 『三國史記』 권1, 紀異 未鄒王 竹葉軍, “往者庚戌年 臣之子孫無罪被誅 君臣不念我之功烈”

88)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の 政治的 變革」, 『社會科學』 2, 1958; 『新羅政治社會研究』, 一潮閣, 1974, 232쪽.

89) 필자는 앞서 행록의 찬술 배경으로 무열왕계의 단절로 인한 가문의 위세 하락을 상정했으나(윤경진, 앞의 논문, 2013, 243쪽), 실제로는 중대에 이미 김유신 가문의 몰락이 진행되었고 무열왕계와의 관계도 파탄 상태였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수정한다.

받은 상황을 생각하면 왕계의 교체는 오히려 무너진 위세를 만회할 기회였을 것이다.<sup>90)</sup>

원성왕 즉위 후 무열왕계의 권위를 삭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열왕계로부터 배제된 김유신계를 끌어들이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었다. 특히 ‘양국평정’의 주역을 무열왕과 문무왕에서 김유신으로 바꿈으로써 무열왕계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무열왕의 공업이 김유신을 얻어 이루어졌고 함께 정사를 폄했다고 서술한 태종 시호 기사는 김유신을 통해 무열왕의 권위가 잠식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물론 김유신의 공업은 무열왕과의 관계가 전제되므로 무열왕의 권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해당 공업이 무열왕과 김유신을 통해 온전히 구현된다면 문무왕의 권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sup>91)</sup> 이것은 원성왕계의 정치적 필요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행록은 하대 왕실의 행보에 자료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김유신의 위상이 현창되었다. 그 귀결이 바로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한 것이다. 이것은 무열왕과 문무왕의 공업을 김유신으로 돌리는 확정적 조치로서 김유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하대 왕실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7세기 전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동하였다. 당시 전쟁이 ‘양국평정’에 국한되면 이는 언제든지 당시 국왕인 무열왕과 문무왕

90) 취선사 연기설화의 모티브가 된 功德寶 설치의 김유신 위상의 편강이 모반 가담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에 따라 점점 불안해지는 왕권을 보완하기 위한 유화책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곧이어 해공왕이 피살되었고, 김유신계의 수용은 하대 왕실에 의해 이루어졌다.

91) 신라말 「月光寺圓朗禪師碑」에서 무열왕이 삼한의 일통을 이루었다고 서술한 것은(『譯註韓國古代金石文(III)』月光寺圓朗禪師碑, “昔我太宗大王 痛黔黎之塗□□海之□□ 止戈三韓之年 垂衣一統之日 被□□□之□ 永除□□之災”) 그의 공업을 구성할 때 문무왕이 불필요해진 상황을 시사한다.

의 공업으로 환원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공업을 김유신의 것으로 돌리고 전쟁의 결과에 체제적 의미를 부여하면 두 국왕의 공업은 상대적으로 희석된다. 이를 통해 ‘양국평정’이 ‘일통삼국’으로 확장되며,<sup>92)</sup> 여기에 삼한의 정체성이 더해지면서 삼한일통의식이 출현하였다. 이에 수반하여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역사적 평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행록의 찬술은 9세기 삼한일통의식이 출현하는 출발로 평가할 수 있다.

#### IV. 맺음말

김유신은 7세기 신라의 전쟁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그의 사적은 전쟁 결과를 ‘통일’로 평가하는 준거가 되었다. 그러나 그 자료적 근거인 『김유신행록』은 『삼국사기』에서 이미 꾸며낸 이야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 그의 서사는 설화적인 것이 많다. 따라서 김유신 사적은 엄정한 비판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록의 찬술 배경과 시기, 그리고 찬술 목적과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문왕대에 정비된 신라의 종묘제도는 해공왕 즉위 후 개편을 겪었다.

92) ‘양국평정’이 ‘일통삼국’으로 전환되는 매개고리로 태종 시호 기사에서 무열왕을 당 태종에 비견하며 당 태종의 ‘일통천하’에 상응하는 공업으로 ‘일통삼국’을 제시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7세기 전쟁을 ‘평정’이 아니라 ‘일통’으로 설명하는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나당전쟁에 대한 인식에서 당과 신라를 대립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당에 의해 공멸된 백제와 고구려를 역시 공멸 위협에 놓인 신라와 같은 위치에 서게 한 것도 일통을 유도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윤경진, 앞의 논문, 2023, 14-20쪽). 이러한 요소들을 매개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외적으로 간주하던 데서 벗어나 자신과의 통합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개편은 미추왕을 시조로 삼고 백제·고구려 평정의 공업을 명분으로 무열왕과 문무왕을 함께 불천지주로 삼는 것이었다. 『삼국사기』 제사지 서문에서는 이 조치를 “始定五廟”라 하였다. ‘시정’의 의미는 시조 설정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왕계에서 太祖 星漢과 시조 미추왕이 다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본령은 불천지주 설정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무열왕은 이미 태종 칭호를 받아 불천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무왕을 불천지주로 삼는 것이 핵심이었다. ‘양국평정’은 무열왕과 문무왕을 묶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이전까지 7세기 전쟁은 백제병합으로 평가되었다. 「답설인귀서」에 제시된 양국의 평정은 당의 공업이었고, 신라는 그에 기여한 대가로 백제 토지를 요구하였다. 문무왕의 遺詔에 나타난 西征北討는 7세기 전쟁 참여를 말할 뿐이며, 전쟁의 성과는 백제에 대한 보복과 영토 확장으로 제시되었다. 「문무왕릉비」에 나오는 “駕朱蒙”과 “承白武”는 고구려·백제와의 접경을 나타낸 것으로 ‘양국평정’을 유도할 수 없다.

결국 종묘제도 개편에서 무열왕과 문무왕에게 ‘양국평정’의 공업을 제시한 것은 7세기 전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을 보여준다. 이에 수반하여 이들을 함께 불천지주로 삼았고, 이것이 신라 종묘제도의 근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시정’이라 표현되었다.

혜공왕대에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그가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이다. 즉위 초의 많은 재변 기사나 재위 기간 잦은 모반은 혜공왕의 불안한 입지를 반영한다. 이것은 즉위부터 예견된 것이었기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모색되었다. 종묘제도 개편은 그 일환이었다.

이 개편은 선왕의 공업을 배경으로 왕위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방안으로, 이미 경덕왕대부터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 기록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경덕왕에게는 태자가 있었는데, 이는 동궁 수리와 아관 설치를 통해 유추된다. 그런데 태자는 일찍 죽었고 그 공백에 따른 파장을 메우기 위해 聖



德王碑를 건립하였다. 그 뒤 태어난 혜공왕이 불과 3세에 태자가 된 것은 당시 후계 구도의 문제를 보여주는데, 경덕왕이 말년에 성덕대왕신종을 발원한 것 역시 어린 후계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종묘제도 개편 또한 어린 국왕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서 성덕왕 때 패강 이남을 공인받은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양국평정’의 공업을 설정하였다. 신라가 “평양이남 백제토지”를 온전히 확보함으로써 더 이상 과거 명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을 7세기 전쟁의 주역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종묘제도 개편을 통한 ‘양국평정’의 수립은 무엇보다 문무왕을 선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열왕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김유신의 꾀감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길항관계는 김유신 헌의에서 잘 드러난다. 김유신은 자신이 明王을 만나 尺寸의 공을 이루어 三韓이 一家가 되었다고 하면서, 문무왕에게 成功과 守成의 어려움을 생각할 것을 주문하였다. 여기서 명왕은 무열왕이며 성공은 삼한의 일통이다. 성공은 무열왕과 김유신이 이룬 것이며, 문무왕은 수성의 군주로 간주된다. 반면 불천지주 지정은 문무왕이 무열왕과 함께 성공의 군주임을 확증한 것으로서 김유신은 그 보조자로 전락한다.

『김유신행록』의 찬자인 執事郎 長淸은 김유신의 玄孫이다. 그런데 열전의 말미에 실린 金巖 또한 김유신의 손자인 윤중의 손자여서 양자는 대수가 같다. 김유신 열전에 부록된 원술과 윤중 등의 사적이 모두 김유신을 실질적인 주인공으로 하는 반면, 김암은 본인의 사적만 실려 있고 다른 열전 인물들과 달리 입전될 만한 사적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삼국유사』에 실린 태종 시호 기사를 보면, 무열왕과 김유신의 ‘一統三國’을 제시하기 위해 당 태종과 魏徵·李淳風의 ‘一統天下’가 대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통천하’와 직접 관련이 없다. 위징이 김유신을 비견하기 위해 채용된 존재라면, 이순풍은 행록의 찬자와 관련될 것인데, 이는 김암이 음양가라

는 사실과 연결된다. 여기서 김암과 장청이 동일인이라는 해석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의 활동 시기와 열전 내용의 하한이 혜공왕 말년임을 감안할 때 행록의 찬술 시기는 원성왕대로 파악된다. 반면 찬술 시기를 경문왕대로 내려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장청이 김유신의 현손인 점과 충돌한다. 또한 열전에 하대의 사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걸린다. 특히 흥덕왕대 흥무대 왕 추봉은 김유신 사적에서 큰 의미가 있음에도 추봉 사실만 간단히 실린 것은 행록이 그 이전에 찬술되었음을 반증한다.

장청의 집사랑 직함이 혜공왕대 관제 복구 이전의 것이라는 점은 그가 도당 유학에 따라 개명하기 전의 인명과 당시 관직이 전승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열전에 등장하는 舒發翰이 경문왕대 이후 자료에 나온다는 것 역시 시간적 지표가 될 수 없다. 서발한은 舒弗邯의 이표기로서 혼용이 가능하며, 서발한 역시 신라말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원성왕대에도 서발한이 나올 수 있다.

행록의 찬술은 중대 김유신계의 몰락과 하대 왕실의 수립을 직접적인 계기로 한다. 김유신 사후 그 후광이 줄어들면서 자손의 위세도 하락하였다. 무열왕의 딸로서 김유신과 정략결혼한 지소부인이 성덕왕대에 비로소 부인에 봉작되는 것은 앞서 그에 대한 예우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김유신계의 지위 하락과 맥을 같이 한다. 지소는 측실 소생으로 보이는데, 행록은 이를 숨기고 김유신의 본부인인 것처럼 정리하였다. 이는 김유신의 자녀들을 무열왕의 外裔로 포장하여 기문의 위세를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취선사 연기설화에서 경술년에 김유신 자손이 역올한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은 김용의 난에 연루된 것을 말하는데, 이는 그만큼 기문의 위세가 하락한 사정을 반증한다. 그리고 김유신이 이를 두고 “군신이 나의 공업을 잊은 것이다”라고 한 것은 김유신 후손이 무열왕계에 전하는 항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대 왕실의 수립은 김유신계에게 반전의 기회가 되었다. 원성왕은 즉위 후 4대조를 추봉했지만 무열왕과 문무왕의 불천을 인정하여 2대만 부모하였다. 하지만 두 국왕의 권위는 점차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 애장왕대 무열왕 등을 별묘로 옮긴 것은 원성왕이 불천지주가 되면서 5묘 운영의 난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명분적으로 무열왕 등의 위상을 인정한 것이지만, 공식 5묘에서 벗어난 이상 권위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상응하여 하대 왕실은 불천이 되는 명분으로서 ‘양국평정’에 대해서도 재인식하였다. 김유신을 그 주역으로 인정하고 체제적인 성과로 수립함으로써 무열왕과 문무왕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이 작업은 행록을 전거로 이루어졌으며, 흥덕왕대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7세기 전쟁을 ‘일통삼국’으로 인식하는 준거가 마련되었고, 여기에 三韓의 역사적 정체성이 더해지면서 삼한일통의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2023.07.09. 투고 / 2023.08.03. 심사완료 / 2023.08.09. 게재확정)

[Abstract]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Writing *The Life and Actions of Kim Yushin*(Kimyusin-Haengrok, 金庾信行錄)**

Yoon, Kyeong Jin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e Life and Actions of Kim Yushin*(Kimyusin-Haengrok, 金庾信行錄). This book served as the basis for the biography of Kim inserted in *Samguk Sagi*(三國史記), and provides invaluable clues that help us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war that took place in the 7th century. When this book was written, what led to its writing, why it was written, and what was its influences, would be the focuses of this study.

After King Hyegong(Hyegong-wang) was enthroned at a very young age, former Kings Muyeol and Munmu came to be heralded as kings whose accomplishments were so noteworthy—conquering both Baekje and Goguryeo— that their ancestral tablets should not be removed from the Dynastic Shrine(*Bulcheon-ji-ju*, 不遷之主). This was a ploy to reinforce the young king's authority, situating him as the successor of these great kings. The official image of the 7th Century War was also modified accordingly, from a war that primarily subdued and annexed Baekje, to a war that conquered both countries(兩國平定). This no doubt led to the legacy of King Munmu being escalated, while damaging(or at least weakening) the authority and image of Kim Yushin. And after Kim's death, the status of his descendants continued to

weaken even more. Denunciation of Kim Yushin's legacy was a huge blow to their already declining status in the society, and their reputation was further tarnished when they were implicated in accusations of treacherous machinations.

Then, after the line of King Muyeol's descendants was severed, and King Weonseong was enthroned, descendants of Kim Yushin finally had the chance to exonerate themselves and restore their honor. Kim Yushin's great grandson Jangcheong(長淸, Kim Am/金巖) authored a memoir documenting Kim Yushin's life and actions, praising him as the leading figure of the 7th Century War. Meanwhile, Kings in the Hadae(下代) period of Shilla continued to diminish its own appreciation of King Muyeol as well as the following kings of that line, which did more than salvaging Kim Yushin's reduced meritorious aura. Eventually the idea that the 7th Century War was a war where Shilla was able to subdue both countries became the dominant ideology of Shilla, and laid foundation for the idea that Shilla was the one that united all the three countries(一統三國).

#### □ Keyword

Kim Yushin(金庾信), *The Life and Actions of Kim Yushin*(Kimyusin-Haengrok, 金庾信行錄), Jangcheong(長淸), Kim Am(金巖), War that conquered both countries(兩國平定), The one that united all the three countries(一統三國).

[참고문헌]

1.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三國史節要』  
『呂氏春秋』 『新唐書』

韓國古代社會研究所 편, 『譯註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2. 연구논문

- 강진원, 「신라 중대 宗廟制 운영과 五廟 始定」, 『歷史學報』 245, 2020.
- 김선주, 「신라 경덕왕대 삼모부인(三毛夫人)의 생애와 정치적 의미」, 『歷史學研究』 44, 2011.
- 金皓東, 「金庾信의 追崇에 관한 연구」, 『新羅史學報』 22, 2011.
- 나희라,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韓國史研究』 98, 1997; 『신라의 국가제사』, 知識産業社, 2003.
- 박남수, 「신라 宗廟制의 정비와 운영 : 중국 종묘제의 변천 및 운영 원리와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49, 2020.
- 박초롱, 『新羅 國家禮制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박초롱, 「신라 하대 왕실의 종묘제 운영과 그 여파」, 『사림』 81, 2022.
- 변태섭, 「廟制의 變遷을 통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教育』 8, 1964.
- 서영교, 「신라 해공왕대의 星變과 政變」, 『民族文化論叢』 31, 2005.
- 선석열, 「신라사 속의 가야인들 : 金海金氏와 慶州金氏」, 『한국 고대사속의 가야』, 혜안, 2001.
- 辛鍾遠, 「古代의 日官과 巫 : 샤머니즘의 政治思想史의 意義」, 『國史館論

- 叢』13, 1990.
- 안주홍, 「신라 해공왕대의 종묘제 개편과 그 함의」, 『역사와 경계』 111, 2019.
- 안주홍, 「신라 애장왕대의 종묘개편과 천자 지향」, 『嶺南學』 73, 2020.
- 윤경진, 「新羅 中代 太宗(武烈王) 諡號의 追上과 재해석」, 『韓國史學報』 53, 2013.
- 윤경진, 「신라 통일기 금석문에 나타난 天下觀과 歷史意識 : 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 고찰」, 『史林』 49, 2014.
- 윤경진,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 : 三韓一統意識 출현의 일 배경」, 『사림』 52, 2015.
- 윤경진,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 백제의 영토의식과 溟河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 60, 2016.
- 윤경진, 「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에 대한 재론 : 근거 자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75, 2016.
- 윤경진, 「신라의 영토의식과 삼한일통의식」, 『역사비평』 126, 2019.
- 윤경진, 「삼한일통의식은 7세기의 이념인가」, 『韓國古代史研究』 93, 2019.
- 윤경진, 「신라 '삼국통일' 논쟁의 논점과 방향」, 『역사비평』 129, 2019.
- 윤경진, 「金庾信 說話의 敍事와 三韓一統意識」, 『震檀學報』 140, 2023.
-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社會科學』 2, 1958; 『新羅政治社會研究』, 一潮閣, 1974.
- 李基白, 「金大問과 金長淸」, 『韓國史市民講座』 1, 1987.
- 이기봉, 「신라 해공왕대의 薦學와 災異」, 『新羅文化』 51, 2018.
- 李文基,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 改革의 政治的 意味」, 『白山學報』 52, 1999.
- 李文基, 「金官伽倻系の 始祖 出自傳承과 稱姓의 變化」,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5, 2004.

- 전덕재,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의 원전과 그 성격」, 『사학연구』 139, 2020; 『삼국사기 잡지·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21.
- 曹凡煥, 「金庾信의 가계와 후손들의 활동 : ‘가야계 출신이어서 가지는 한계’의 학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新羅史學報』 11, 2007.
- 주보돈, 「김유신의 정치지향 :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新羅史學報』 11, 2007.
- 蔡美夏,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의 改定」, 『韓國史研究』 108, 2000.
-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 최흥조, 「신라 애장왕대의 정치개혁과 그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54, 2009.
- Vladimir M.Tikhonov,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條가 內包하는 意義」, 『梨花史學研究』 22, 1995.